

■ 회원간담회

KH.내외경제 초청 회원간담회

제68회 한국광고주협회 회원간담회가 지난 10월 11일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을 비롯하여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동서식품 김용언 사장, 동원산업 강병원 사장, SK해운 최의중 사장, 현대백화점 이병규 사장, 두산 고종진 부회장 등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 대표가 참석하였고,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전응덕 회장과 한국광고업협회 이기흥 회장, 한국ABC협회 조용중 회장 등이 광고계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그리고 코리아해럴드내외경제신문사에서는 김병연 회장을 비롯한 김경철 사장, 유장홍 상무, 서성원 상무, 코리아해럴드 최남현 국장 등과 다수의 부국장급, 부장급 직원이 참석하여 뜻 있는 자리를 함께 하였다. 특히 한국야쿠르트의 김순무 사장은 신제품 음료를 선물해 참석자 전원에게 시음의 기회를 주었는데, 시음 결과 만족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 날의 주제발표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한국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유가와 주식시장 불황 등으로 경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업과 금융부분에 2차구조조정이 임박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때 기업구조조정의 의의에 대하여 다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왔는데 지금은 경제회생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다.”라고 경제회생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기업구조조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 내용이다. 지면상 전재하지 못하고 요약, 정리한다.

주제발표.기업구조조정의 의의

구조조정이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1단계 2단계 단계를 나누고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단계를 나눠서 추진하게 된 것은 반드시 해야되는 일이고, 많은 것이 서로 얽혀있는 과제이니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IMF 외환위기로 인해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고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산업기반의 와해라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빠른 경기회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완전히 제고하지 못하고 대우처럼 구조조정에 실패한 경우가 속속 나타나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부족했다. 이것이 국내외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금경색,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난관을 타개하고자 희생 가능한 기업은 확실히 살리고, 희생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는 2단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다. 대내외 신임도 회복과 자금경색,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만이 유일하고도 최선이기 때문에 서둘러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기업을 어떻게 판정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기업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한 부실판정의 일반적 기준은 은행의 자체 여신심사기준과 다르지 않다. 이자보상배율에 있어서도 3년 평균치와 미래상환능력을 보도록 했다.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등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은행이 빌려준 돈을 장차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바라는 이들 가운데는 98년도처럼 유명무실한 기업만 정리하는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

계열기업간의 연결고리가 끊겨져 독립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보증이 차단되었고, 계열 전체의 부실화를 두려워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다. 즉, 그룹 전체는 결코 공동운명체가 아니며 채권은행이 개별기업별로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은행의 여신심사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혹자는 기업 금융을 주로 하는 은행의 대주주가 지금은 정부이니만큼 부실기업의 선정이나 정리과정에 정부가 손쉽게 개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일부 은행이 특정기업을 비호하려해도 다른 은행의 동의 없이는 여의치 않다.

모든 것이 공개리에 진행되고 시장의 감시기능이 엄정하게 작동하고 있기에 은행이 어떤 기업에는 느슨한 기준을, 다른 기업에는 엄격한 기준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당히 적용할 수가 없다.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과 은행이 예전처럼 공동운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는 대손충당금이 크게 확충되어 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 등 부실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기준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이 쌓여 있다. 거래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나 부실의 증폭 가능성 등은 누구보다도 채권은행이 잘 알고 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결단을 미루어온 이유는 은행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신력이 흔들리는 은행은 시장에 의해 배격된다는 것을 은행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준비가 필요했다. 국민의 부담을 우려해 공적자금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실증폭의 사슬을 끊고 금융의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루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고 회수를 극대화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은행이 수익성 높은 상업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회계법인이 미래의 수익전망을 추정하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맡을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고원경기를 실현하고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한 미국에서도 은행들이 매년 총여신의 1%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한국의 은행이 그 역할을 다하려면 예대마진을 넓히고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켜 수익성을 현격하게 제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손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적절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건 즉, 과당경쟁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곧 금융구조조정의 지향점이다.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망의 문제다.

◀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